

생의 창발(創發): 성과 속의 경계에서

최영
소설가

프롤로그

경남도립미술관 [살어리 살어리랏다] 전시는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라고 명명한 초입의 24미터 야외 설치작품에서부터 압도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최정화는 가마솥, 양푼, 냄비와 같은 속된 것들로 파고다(pagoda)라는 성스러운 형상을 빚어내었다. 그렇다면 속된 기물이 성스러운 형상으로 전환된 그 순간은 언제부터일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우리의 속된 생은 언제 성스러워지는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이번 전시는 ‘생(生)’에 관한 근원적 탐구이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포럼)에서 현명한 말을 할 자신이 없다. 미술, 그것도 현대미술이라는 팬시(fancy)한 영역에서, 이렇게 명망 높은 미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저 구레나 사람 시문처럼 쭈뼛덜 뿐이다. 다만, 쓸모가 다해 버려진 소쿠리라도 가장 번듯한 장소인 대리석 위에 올려놓는 작가가 최정화이니 그의 전시라면 나 같은 소쿠리도 끼어들 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거창한 비평이 아니라 내가 목도한 연금술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겠다.

잡기(雜器)는 무엇을 꿈꾸는가

직접 보지 않으면 24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육교 정도인가? 아파트 8층 높이이다. 그 높이를 이룩한 것은

The Emergence of Life: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Choi Young
Writer

Prologue

The Gyeongnam Art Museum's exhibition *Sarori Saroriratta* begins with a grand view of a work entitled *Anthropocene*, which is a 24-meters-high outdoor installation standing on the way into the museum building. Choi Jeongwha put stacked cauldrons, silver nickel pots, bowls, and other secular objects into the shape of a pagoda like a sacred shrine of tableware. But at which moment did those secular households turn into something sacred? This question can be put another way as well. When does our everyday life become sacred? Where are the boundaries between the secular and the sacred drawn?

This exhibition is a fundamental exploration into 'life'. However, I'm not really sure if I can say something insightful about ar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ntemporary art, a 'fancy' field of human activities. Even while I'm sitting with such famous art experts, I feel shy like Simon of Cyrene. But at least since this exhibition is with Choi Jeonghwa, who placed even the most useless worn-out basket on the smoothest marble, I'm a little encouraged to find my place in a little niche here like a little basket. So, what I'm going to say from now on are not some great words of critique but my testimony to the alchemy that I witnessed.

What do all those odds and ends dream of?

Without actually looking at it, one can't grasp how high 24 meters is. Is it about the height of a pedestrian

220개의 잡기들이다. 무식 가마솥이 무식담계 제일 아랫단을 책임지고 그 위로 뽀얀 육수를 몇만 그릇 넘게 우려냈을 양은 찜통이 사뿐히 올라가고, 그 위에는 옛날 어른들이 빨래를 삶을 때 썼을 것 같은 쓸모를 다한 양은 솥이 자리를 잡고, (꼭대기 부근에는 무엇이 있는지 맨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지만, 냄비와 프라이팬 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늘 높이 솥 탑, 인류세 파고다가 솟아올랐다.

'인류세'라는 용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지구의 기후와 환경, 생태 변화 상황이 새로운 지질시대라고 봐도 될 만큼 특징적이고,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 바로 '인류'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용어이지만, 감상적 생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냉정하게 대안의 득실을 살핀 후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결국 환경문제도 인류가 나쁘히 해결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품은 예코 모더니즘의 시각도 있다. 이런 예코 모더니스트들의 시각에서는 인류세가 마치 르네상스나 계몽시대처럼 역설적인 의미로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인류세는 인간이라는 현명한 자(histor)가 들려주는 이야기(history)가 아닌 지구사(geohistory)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풀리는 퍼즐이다.

"지구(地球儀)를 놓고 보면 육지보다는 수면이 훨씬 더 많다.

지구(地球)가 아니라 수구(水球)라야 더 적절한 명칭일 것 같다.

사람들이 육지에 산다고 저희 생각만 해서 지구라 했나 보다."

- 상허 이태준의 수필 「바다」 중에서

지구환경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학교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 모든 위기의 기저에는 저희 생각만 하는 인간의 이기(利己)가 자리하고 있다.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탐이 세워질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탄 양은 찜통이나

flyover? No, it's as high as an 8-story apartment building. 220 objects are built up into that height, pieces that have all gone out of use. Iron cauldrons are seated at the lowest level, then silver nickel steamers, which seem to have made rich meat broth for dozens of years, are placed on top of the cauldrons, and some silver nickel bowls with wide lips seemingly used for boiling laundry are put above the steamers. (Although it's hard to identify what is on top of this tower with the naked eye, I suppose that some pots and frying pans and the like will be up there.) In this way, this household tower *Anthropocene* ascends high up into the sky.

The core ideas of the term Anthropocene can be summed up with the claim that 'humanity' is now causing an ongoing environmental crisis with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arth's environment, climate, and ecosystem, to the point that it can be defined as a new geological era distinct from previous eras.

It basically serves as an alert reminder of our environmental crisis and has brought about different takes on the issue: some people affirm that we should leave behind a sentimental ecological viewpoint, while some so-called ecological modernists speak with a rather positive tone that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be based on careful and thorough examinations of all possible solutions and with that, humanity will be able to stop the progres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eventually. From this eco-modernist perspective, Anthropocene sounds as paradoxical as Renaissance or Enlightenment. Whatever makes more sense, this issue is a puzzle that can only be cracked with a geohistorical approach rather than historical ones.

Looking at a globe there are more waters than the lands.

It would be more sensible to call it Hydrth than Earth.

Probably, people named it Earth because they live on the lands.

From "The Sea", an essay by Lee Taejoon

What underlies all of the crises in our environment, community, school, family and so on is human self-

프라이팬 같은 존재이다. 무식 가마솥처럼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은 가장 높이 오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완강히 버틴다.

그리고 나는 하고자 하는 말을 잠시 멈춘다.

사실 초임의 술 탐 인류세는 두 번 봐야 하는 작품이다. 미술관에 들어갈 때보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둡해지는 하늘과 그 속에서 잠깐 명멸하는 노을의 빛과 함께 보아야 더 흥만해진다. 이 이야기는 글의 끝부분에서 하겠다.

허주(虛舟)에 실린 것은 무엇인가

제1전시실로 들어간다. '당신의 빛'이라는 공간이다.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작품 '민들레'를 연상케 하는, 전시 공간 천장까지 꽉 차는 커다란 작품이었다. 바다에서 떠돌다 해안까지 밀려온 부표와 버려진 소쿠리 등으로 만들어졌다. 바다 냄새가 물씬 나서 성개라고 작품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싶었다. 이 작품은 앉아서 감상했다. 작품 바로 앞에 읊네 슈퍼에서 봤음직한 한 칸이 평상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 창판에 열선이 들어가서 엉덩이가 따뜻했다. 그렇게 성개를 마주하고 앉아 있으니 명개와 해삼 생각이 났다. 초고추장과 소주도 함께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전시 공간으로 이동했다. 벽면을 포함해서 군데군데 거울이 많았다.

항구적인 실재를 뜻하는 이데아(idea)가 본질이고, 반대로 감각으로 지각되는 구체(具體)인 에이도스(eidos)는 이데아의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플라톤은 주장했지만, 존재는 존재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 인식됨으로써 '새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시장의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다. 상(像)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몽환적 세상을 새로 창조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돌리자 빈 배가 나타났다.

허주(虛舟)에 실린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은 불성설(不成說)이다. 아무것도 실린 게 없어서 빈 배인데, 거기에 무엇이 실렸는지 찾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파선된 흔적 그대로의 배 앞에 서면 멀리서 볼 때와 달리 배가 생각보다 크구나, 하는

centredness. Without a sense of coexistence, what we've achieved thus far could fall apart at any moment. We all are like a silver nickel steamer or frying pan placed on the shoulder of someone else. The biggest and heaviest, like a large iron caldron, stand fast at the bottom without rising upwards.

And I'd better stop here, leaving unsaid what I want to say for a while.

Visitors to this exhibition are to see Anthropocene twice. It already looks fascinating even if seen before entering the museum, but it looks more beautiful and fulfilling when seen on one's way back home after seeing the whole exhibit, when the sky is growing dark in the red glow of the setting sun.

What is the empty boat carrying?

I walked into gallery 1. It had the title 'Your Shining Light'. What first greeted me there was an installation so large it almost touched the ceiling. It reminded me of Dandelion standing in the courtyard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work consisted of discarded baskets and floats washed up by the sea on different beaches. The smell of the sea was almost tangible. Calling it *Sea Urchin* seemed right.

I looked at the work while sitting on the wooden bench, which looked exactly like something you would have seen lying in front of any mom-and-pop shop in a small town or neighbourhood. Since an electric heating pad was laid on the bench, I felt warm. Facing *Sea Urchin* that way made me think of sea squirts and sea cucumbers, and rich chilly vinegar and soju.

I got up, licking my lips, and moved further inside. There were mirrors here and there either hung on the wall or standing on the floor. According to Plato, Ideas are aspatial and atemporal and also the essence of all things, whereas eidos is physical and is merely an imitation of Ideas. But I think a thing exists 'newly' whenever being recognized by the other, rather than existing in and of itself. Moreover, the mirrors were



1) 「그리스인 조르바」의 영역본 중역이 아닌 그리스어 원전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유재원(한국외대 그리스학과 명예교수)에 의하면, '카잔차키스'가 아니라 '카잔자키스'가 더 정확한 표기라고 한다. [2018.05.31. 한겨레 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

느낌을 받는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실용의 운송수단, 즉 하나의 도구였다가 그 쓸모를 벗어난 덕분에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배는 흐름(fluid)을 거슬러야 하는 속명 때문에 미끈한 유선형의 몸으로 태어난다. 합리주의 건축의 대마왕이었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자신의 『도시공학(urbanism, 1924)』이라는 저서에서 “곡선의 가로는 당나귀의 길, 직선의 가로는 인간의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과 공기라는 대자연은 뺏겼던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정화의 저 배는 강과 바다에서 당나귀의 걸음으로 유체를 헤치고 나아갔을 테다. 자연을 거슬러야 하면서도 자연과 합일되어야 하는 그 모순적 경계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고단한 육신을 누이고 있는 배 위로 알록달록한 것들이 떠돈다. 빈 배에 실린 것들이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슴과 고래(세로로 서 있어서 처음에는 갑오징어나 꼴뚜기인 줄 알았다)와 새와 인간의 형상이다. 알타미라(Altamira)나 라스코(Lascaux) 동굴 벽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구석기의 이미지다.

구석기 시대는 선사시대이다. 선사(先史, prehistory)라는 말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없다는 뜻이니 인문학적으로는 어둠한 시대일 따름이다. 빛이 들기까지는 몇천, 몇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제1전시실 주제이기도 한 그 빛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빛(enlightenment, 계몽)은 또렷한 눈으로 온갖 어둠을 응시하는 일.

- 니코스 카잔차키스¹⁾

최정화는 ‘나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다’고 전시실 벽에 화두 같은 아포리즘을 던져 놓았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만든다고도 했다. 전시실의 깨진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 거울은 우리를 그대로 비추지 않고 하나의 상(像)을 만들어

not commonplace mirrors. They reflected what they received like the scenes in Salvador Dalí's surrealist paintings.

From there, I turned my gaze and saw an empty boat. What is the empty boat carrying? Actually, this question doesn't make sense. Since it is an empty boat with nothing loaded on it, how wacky is it to ask what is in it? But looking closely at the wrecked boat lying there, it felt quite huge, bigger than expected from a distance. Probably a ferry carrying people. Before it came here as a work of art after it stopped being used.

A boat is born in a streamlined form since it has to move forward against the water current. In his book *Urbanism* (1924), Le Corbusier said, "a curved street is a donkey track; a straight street, a road for men." Elements such as water and air do not allow for anything stiff. Likewise, that boat would have travelled in the river and the sea cutting a curved seaway like a donkey. Running against but at the same time conforming with nature. Something takes place on the boundaries between such negotiations.

Above that boat at rest, sweet colours were hovering, as if loaded in the empty boat. Looking at them carefully, they turned out to be a deer, a whale (as it was hung with its body turned, it looked like a cuttlefish or a baby octopus at first), a bird and a human. They looked like those paleolithic images that you can see at the parietal cave art of Altamira or Lascaux.

The Paleolithic era is a prehistoric period. Since prehistory is that time in history before anything was written down, it was in the dark humanistic-wise. There must have been thousands, tens of thousands of years spent in the dark until the first light came about. Then, what does the light of 'Your Shining Light' refer to?

The real meaning of light (Enlightenment) is to gaze with undimmed eyes on the darkness.

--Nikos Kazantzakis

Choi Jeonghwa wrote on the wall of the gallery an aphorism, 'There is no I without you, no you without

낸다. 현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 태생의 소설가가 했던 말처럼 그 거울이 또렷한 눈으로 온갖 어둠을 응시하는 순간이 빛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반대로 거울을 응시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문자가 없던 그 어둔 구석기 시대에도 생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생을 증거 하는 예술도 존재했다. 고고학자인 스티븐 미슨과 마렉 콘에 따르면 이미 100만 년도 전, 아슐리안(Acheulean) 시기에 사람들은 좌우 대칭이 뚜렷한 '섹시한 손도끼(Sexy Handaxe)'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도끼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단다. 예술품이니까.

그러나 예술작품으로서의 손도끼보다 더 그 시대를 증언하는 작품도 있다. 바로 조개무덤, 혹은 조개무지로 불리는 패총(貝塚)이다. 안타깝게도 패총은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특별한 미적 감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는 못해서 예술이 아닌 생활 관련 유적으로 분류된다.

패총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연구 자료인가? 이유는 구석기를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즉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둔 세계의 기억을 또렷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이 필요한데 패총이야말로 응시해야만 하는 기억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버려진 조개껍질 더미에 그 시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전시장의 온갖 오브제들의 재료가 버려진 사물들이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부표와 스티로폼도, 솔 탐과 솟대를 만들고 남은 두껍으로 붙여 만든 벽화도, 나선의 탐으로 썰아 올려진 생선 상자도 모두 이 시대, 바로 '인류세'의 조개껍질이라는가!

그렇다면 그 많은 조개껍질 속 조개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해답이 '당신이 기념비입니다'라는 작품에 하나, 하나 새겨져 있다. 그 작품에는 이번 전시에 식기를 가져다준 경남도민들('모아모아' 프로젝트)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 공간 사이사이에는 백만 년 전 맘모스(mammoth, 매머드)와 고래를 사냥하던 구석기인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날 거센 물결을 거스르며 생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아로새겨 있다.

me.' He also wrote, 'I make you, you make me'. I looked into one of the mirrors in the gallery. The mirror didn't reflect me as I am but showed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As the Greek author said, the moment the mirror gazes with undimmed eyes on the darkness is the moment the light comes about. On the contrary, the responsibility of gazing in the mirror is on me.

During the time when there was no written language, there was life. Also, there was art as evidence for that life. According to archaeologist Steven Mithen and science writer Marek Kohn, Acheulean people more than a million years ago made symmetrical 'sexy' hand axes. But they never used them because they were art.

However, there are other things that demonstrate prehistoric culture even better than hand axes as art: middens, called kitchen middens or shell heaps. Unfortunately, insofar as those middens are not aesthetically beautiful or do not create a certain aesthetic sensation in people, they are classified as lifeworld-related historical sites rather than art.

Why are these middens important materials in humanistic studies? Because in order to enlighten us of the paleolithic era, or to understand the period, one needs undimmed eyes to gaze on the darkness and the middens are the evidence or memories of the time at which we should gaze. The life of the time has been preserved in the shell heaps.

Having said that, all those objects displayed in the gallery are things abandoned by people. The floats and polystyrene pieces washed up on the shores, the murals made with the assemblage of abandoned lids of cauldrons and of *sotdae* (a tall wooden pole or stone pillar erected to pray for a good harvest), and wooden fish boxes gone out of use, all of these objects are the shell heaps of today, the Anthropocene, aren't they?

If so, who ate the contents of such countless numbers of shells? The answer was engraved in every single

모든 추억 속에는 그분이 계시다

또 다른 조개무지가 있다. 제2전사실이다. 주제는 '우리의 기억'이다.

정말 온갖 기억들을 모아 놓았다. 도민들이 보내 준 흑백으로 된 졸업사진, 소풍 사진, 액자, 상장, 표창장, 교지, 졸업장, 전역증, 청첩장 등 '기억채집'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해각, 광암해수욕장, 특히 부곡하와이는 나에게도 절로 입이 활짝 벌어지는 추억의 공간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맞물려 밀양 영남루와 얼음골 사진도 찾아보았지만 아산가족 찾기 하듯 너무 많은 사진 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이 추억과 사연들은 누가 다 모아줬을까? 학교에서 상 탄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랑했을까? 아마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을 테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장과 사진과 앨범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장롱 한 칸에 넣어두었을 테다. 그것들이 빛바랜 기억으로 경남도립미술관의 흰 벽에 작품이 되어 걸려 있다.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 중에서

나는 전사실 천장에서 뭔가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 늦가을에 웬 소낙비인가 싶어 잠시 머리동철해진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빗소리는 아니다. 후드득, 또 한 번 떨어진다. 알겠다. 냉장과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딱딱한 검은 '비닐

object constituting the work, 'You are the monument'. The work doesn't only show the names of people who donated their tableware to the museum for one of this exhibition's projects, *Gather, Together*. Between the objects, the names of prehistoric people who would have hunted mammoths and whales and of all of us struggling against the waves of our unpredictable lives are beautifully engraved.

'The one' is in every memory.

There was another shell heap. Gallery 2. Its theme was 'Our Memories'.

Really, every sort of memory was put together there. A photograph of a graduation in black and white, of a picnic, picture frames, various certificates of awards and degrees, wedding invitations, etc. I could feel how many peopl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Memory Collection*. Namhaegak, Gwang-am Beach, and Bugok Hawaii in particular were places in my memories as well.

While many memories of my childhood arose, I looked if there might be some pictures taken at Youngnamroo and Eareumgol in Milyang, but got lost in the myriad of pictures. By the way, who brought together all those memories and stories here? To whom did the receivers of the awards show their certificates first? They would probably have run to someone who would have been most happy for them. And then those certificates would have been carefully placed in one corner of a drawer along with the family albums. And now they are hung on the wall of the museum's gallery as faded pieces of memories.

On this white wall of the wind

My poor old mother squats

My poor old mother

In this frosty cold air

Soaking her hands in the icy-cold water, washing radishes and cabbages.

붕다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다. 자식 주려고 무얼 그리 쟁여 놓았는지 꼭꼭 싸매져 내용물은 알 길도 없다. 아마 딱이며 고기며 당신도 좋아하는 것들일 테다.

이심전심일까? 전사실을 나오면서 하얀 벽에 최정화가 써 놓은 글귀를 보게 된다. 그는 '눈부시게 텅 빈 밥그릇'을 보며 '어머니 당신에게 이 빛을 바칩니다'라는 수줍은 고백을 해 놓았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이유는 누군가 내 삶을 기억해 주고 배경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흰 벽은 하나의 배경이다. 누구 엄마라는 배경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는 나에게 연말이 되면 꼭 '농협' 가계부를 구해 달라는 것 외에 달리 바라는 일도 없다.

토끼, 피보나치 시퀀스(Fibonacci Sequence)가 되다

제3전시실은 '무이무이(無異無二) 생활사 박물관'이다.

같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달라서 좋은 것들도 있다. 전시공간은 고가구가 한가득하였는데, 고가구 속에 든 내용물은 이불이 아니었다. 이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원일이 부부동반 무도회라도 나온 듯한 쌍색 기다란 열을 맞추어 앉아 있었고, 또 그 옆의 다른 가구에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울릴 만한 색색이 유광 플라스틱 공들이 어린아이가 밥 한술 가득 문 것처럼 꼭 차 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불은 어디로 갔나. 궁금하던 차에 엉뚱한 곳에서 집 나간 이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벽에 걸려 있었다.

어느 여관에서 가져온 이불이라는데, 어찌 저리 고급스럽고 예쁠 수 있을까? 연분홍, 연노랑 꽃들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는 품이 어디 왕실에서나 썼을 법한 침구 느낌이였다. 여백을 충분히 주어서 우아하기까지 한 그 이불을 하트 형태의 침묵, 주황 네온사인인 마치 여관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커다랗게 장식되어 이불이 허름한 삶을 벗어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음을

From "There is a white wall of the wind", a poem by Baek Seok

A sudden sound of drooping caught my ears. Rain in late fall? I was bewildered for a while. Listening carefully, it was not raining. Drooping. Once again. I see. It was the sound heard when you open the refrigerator and dark plastic bags containing something hard drop to the floor. So tightly knotted, you do not even guess what is inside the bag. Maybe, they are some rice cakes, meats or something like that, probably what you like. Probably your mom bought them for you.

Great minds think alike? Leaving the gallery, I saw Choi Jeonghwa's handwriting on the wall. He wrote, 'Glittering empty pots...mother...these shining lights are dedicated to you.'

The reason I am the protagonist of my life is because there is someone who remembers me and becomes the background of my life. The white wall of the museum is a background. The one who was happy to be in the background of my life. She didn't expect anything but to get a 'Nonghyup' account book at the end of each year.

Rabbit, Becomes Fibonacci Sequence

Gallery 3 is 'Moui-Moui Life History Museum'. The similarity is good, but at the same time the difference is good as well. The gallery was full of antique furniture. But what was contained within were not bedclothes. Within one piece of furniture, an array of paired wooden mandarin ducks replaced bedclothes. Another piece was populated with Christmas ornaments, similar to colourful plastic balls.

While hanging around the installations wondering where the bedclothes would be, I found one in an unexpected place. It was hung on the wall. Reportedly, it was brought from a motel. But how luxurious and beautiful it was! Pale pink and light-yellow flowers were embroidered so exquisitely as to make one think it fit for a queen. Elegantly leaving enough space blank, the piece was surrounded by neon signs in blue,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의 거울과 태피스트리(tapestry)에도 '비 우(雨)'자와 1,1,2,3,5,8,13,21 등의 숫자로 이어지는 피보나치 수열이 네온사인으로 빛을 뿜고 있었다.

먼저 '비 우'자를 보고 떠올린 것은 번개였다. 그 붉은 번개가 번쩍하고 전기 에너지를 내뿜자 하늘에서 비가 후드득 내려 끈끈한 바다 수프 위로 떨어졌다.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이 기억하는 원시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이다.

생이 창발하는 순간의 번쩍임이 피보나치 수열로 세워놓은 탑 위에 꽃히는 듯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앞의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 수열이 계속 진행되면 뒤의 숫자를 분모로 앞의 숫자를 분자로 했을 때 1:1.618이라는 비율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황금비'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황금의 비율'을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소망이 만들어 낸 오류이다.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 내는 황금의 비율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의 황금비이지 인간의 시각적 쾌감에 기여하는 조형적 황금비가 아니라는 뜻이다.

신용카드, 명함, 복사용지, 책의 판형 모두 1:1.618이라는 황금비와는 거리가 멀고 쓰임새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율로 디자인된다. 기능을 위해 황금비를 없앤 것이 아니라 황금비로 만들어 놓으면 예쁘지가 않아서 그렇게 제작하지 않는 것이다. 비너스 조각상이나 고대 그리스 신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다는 황금비도 마찬가지이다. 황금비가 애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1:1.618에 들어맞는 '극히 일부분'을 굳이, 그것도 살짝 측정 부위를 왜곡해 가면서, 찾아낸 사례이다.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계와는 달리 자연계의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은 실존한다.

시작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피보나치가 「산반서(Liber Abaci, 계산판에 관한 책)」에서 토끼의 개체 수 증가를 수학적

green and orange arranged in the shape of a heart. Escaping the shabby space of a motel, the cloth was reborn as a fine work of art.

Next to it were a mirror and a tapestry showing the Chinese character 雨 ("rain") and an array of numbers, '1,1,2,3,5,8,13,21...', the so-called Fibonacci sequence, as neon signs in various colours. First, the character 雨 reminded me of a thunderbolt. As the red thunderbolt sparks, rain starts falling into the sea. This is the origin of life on primitive Earth that was embodied as Oparin's theory and as Miller's experiment recalls. It felt as if the lightning in the moment of the emergence of life hit the sequence. The Fibonacci sequence is created as the previous two numbers add to equal the next one. While the sequence extends, if taking the latter number as denominator and the former as numerator, the result, as it progresses, becomes closer and closer to the rate '1:1.618' known as the golden rate.

However, unfortunately, the attempt to create plastic beauty based on this ratio failed. A mistake caused by human desire. The ratio that the Fibonacci sequence creates is the golden ratio of life in the natural world, not of an aesthetic form to please human eyes.

Credit cards, business cards, papers, and the standard book size are all far from this ratio. Products are all designed according to their usages. It's not that humans sacrifice the ratio for the functions of the product, but that the golden ratio did fit the products aesthetically. The aesthetic ratio found in the statue of Venus or in ancient Greek architecture and the Egyptian pyramids are all unrelated to the golden ratio. This golden ratio did not exist until humans found this ratio in 'extremely rare' things—people even adjusted their areas of measurement to justify the ratio. It was like having the result first and adjusting everything that followed.

However, the golden ratio or Fibonacci sequence exists in the natural world, unlike in the human world. It first appeared in an unexpected place. In *Liber Abaci* (a book about calculation), Fibonacci posed a

사려 문제로 '가정'한 데서 수열이 하나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해져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수열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꽃잎의 숫자,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형 배열, 앵무조개 껍질의 무늬 등에서 발견된다. 광합성, 즉 햇빛을 찾기 위한 갈망과 세포 증식, 즉 누적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의 한계가 어떤 '황금'의 비율을 탄생시켰다. 즉, 피보나치 수열은 생이 깃든 곳에 존재하는 생의 수열인 것이다.

집은 남빛 하늘에는 금빛 보름달이 걸렸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 노신의 단편소설 「고향」 중에서

수열은 숫자가 낸 길이다. 그 하고많은 수열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도드라진 이유는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별수 없는 지구 위의 한 생명체이므로 우리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보나치 수열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둥근 맛에 관하여

술 탐 인류세 주변으로 둥글고 예쁜 것들이 웅기종기 앉아 있다.

연계전시였던 '과일여행 프로젝트'의 과일들이 미술관 앞마당에 모였다. 그냥 과일이 아니다. '생' 과일이다.

과일은 저리 큰데도 양증맞다는 생각이 든다. 파인애플과 오렌지와 호박은 빛깔도 곱다. 딸기는 미술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깡겨' 있다. 사람들이 애정하는 포토존이 된다.

puzzle about the growth rate of rabbit populations based on his 'hypothesis' of the growth of an idealized rabbit population. The puzzle became famous and ultimately earned the sequence the name the Fibonacci sequence. This sequence (not 100 percent though) is found in the numbers of floral petals, in the spiral pattern of seeds within a sunflower, and in the pattern of a Nautilus shell, etc. Photosynthesis viz. the desire for sunlight and cell proliferation viz. the cumulative increase of cell numbers gave birth to the golden ratio. Namely, the Fibonacci sequence is the sequence found where there is a life.

A golden full moon hangs in the pitch-blue sky.

I thought. That hope can't be said to neither be there from the beginning nor be not there.

It's like a road on the ground.

From "Hometown" a short story by Noh Shin

A numeric sequence is a road that numbers have cut. Among the numerous numeric sequences, the reason the Fibonacci sequence stands out is because so many numbers of living creatures have followed the road. We humans are also living creatures living on the Earth. Maybe, there is a yet undiscovered Fibonacci sequence inscribed in us.

About the taste of the round

Rounded, cute-looking objects were sitting around the tower Anthropocene. The fruits in a related exhibition *Fruit Tour Project* gathered in the museum park. They were not just fruits but 'living' fruits.

How cute they are, even so big, I thought. The colours of pineapple, orange and pumpkin were so lovely. And a strawberry was sandwiched within the staircase connecting the first and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Inarguably, the site has become a museum visitors' beloved photo zone.

Fruits need to ripen. Only when they ripen enough do their tastes round out.



과일은 익어야 한다. 익어야 맛이 둥글어진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땡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 장식주의 시 「대추 한 알」 중에서

대추뿐 아니라 과일 속에도 무서리 내리는 몇 밤이 들어있을 것이다. 저 고운 빛깔이 그냥 나왔을 리가 없다.

아이들이 과일 걸으로 모인다. 솔 탑보다도 아이들은 커다란 과일이 마음에 든다. 둥근 것들은 모두 아이를 닮았다. 뽀로로도 핑크퐁 상어가죽도 뽕수도 모두 둥근 것들이다. 아이들은 상처받는 일에도 상처 주는 일에도 모두 겁을 낸다. 아이들은 상처가 나더라도 무릎에 엎고 바르고, 엄마가 호 해주고, 그리고 몇 밤 자면 나아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어른이랍시고 굳이 그 세상으로 들어가 슬픔과 상처 따위를 미리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한없이 높은 탑을 심각한 표정으로 올라다보겠지만, 지금은 그저 둥글고 알록달록한 세상에서 해맑게 웃는 표정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어른이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둥근 표정으로 살기를.

3층에서 바라본 풍경

미술관 3층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특별하다. 들어올 때 보았던 솔 탑 인류세를 맨 꼭대기의 피뢰침까지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멀리서 탑의 끝과 시선을 나란히 두게 되면 탑 주위의 모든 사물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That one cannot be rounded by itself

Several nights of early frosts in it

A couple of months of scorching sun in it

A few days of crescent in it

They would make its taste round

From "A Jujube," a poem by Jang Seokju

Several nights of early frost would permeate not only into jujubes but into other fruits as well. The colours of the fruits could become what they are without that. Children were approaching the fruits. They liked the fruits more than the tower. Pororo, Pinkfong baby shark, and Pengsoo are all rounded. Anything rounded resembles children. Children are afraid of both being hurt by anyone else and hurting anyone else. They are living in a world where they have moms, who apply ointment and blow a warm breath on their scratches if hurt, and they are healed a few days later.

We grown-ups needn't rush to teach them of the full sadness of the world and its wounded minds. Those kids will grow up and one day will look up at the tower with serious faces, but for now, to be laughing and happy, surrounded by rounded and colourful things, is good enough for them. Rather we adults often need to be more like children. Even if in the littlest moment,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put on a rounded look on your face even once a day.

A view from the third floor

The landscape seen from the balcony on the museum's third floor is special. The top of *Anthropocene*, which one has seen before entering the museum, is completely within view at last. From the vantage at the top of the tower, now at eye level from this distance, everything around feels stationary for a moment. And

그리고 그 순간 탑은 하나의 몸짓이 된다.

상류로 거슬러오르는 물고기떼처럼

그는 그의 몸짓이 슬픔을 넘어서려는 것을 안다

모든 몸부림들이 빛나는 정지(靜止)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 이성복의 시 「상류로 거슬러오르는 물고기떼처럼」 중에서

탑의 몸부림이 빛나는 정지를 이루는 순간, 나는 하늘을 본다.

하늘은 벌써 어둑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 같은 울음이 지상으로 떨어진다. 아까 보았던 '비 우'자가 우수수 내린다. 짙고 강한 물줄기이다. 다시 적막이 찾아들고 하늘은 어느새 노을빛이 된다.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생은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나고 난 시간'에 찾아든다.

생은 하나의 인식이다.

경남도림미술관에 처음 들면서 속된 기물이 성스러운 형상으로 전환된 그 순간은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속된 생은 언제 성스러워지는지, 그 경계가 있다면 어디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나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생이 창발하는 순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은 질문이 아니라 답임을, 각자가 자기 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답하는 것임을, 이곳에 와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삶은 누군가의 배경이면 좋겠다.

탑의 일단처럼 또 다른 생의 반침이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그래 주었듯이.

삶은 그렇게 송고가 된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in that moment, the tower becomes a gesture.

Like a school of fish swimming upstream

He knows his gesture goes beyond sadness

That every gesture is directed towards the shining stop

From "Like a school of fish swimming upstream," a poem by Lee Seongbok

When the tower's gesture reached the shining stop, I looked up in the sky. It had already grown dark. Before long, thunder-like cry began to fall on the ground. The character 雨 ("rain") that I'd seen on the museum's wall—this now poured down. Short and strong jets of water. Then, again, a stillness. The sky turned the colour of the sunset. It is the light that you're waiting for. Life finds itself after the lapse of time like the owl of Minerva.

Life is cognition. When was the moment all these secular objects came to the Gyeongnam Art Museum and turned into sacred forms? When does our secular life become sacred? And if there is a border, where is it? I tried to find the answers.

Now, I realize I cannot answer the questions.

It is not because I could not find the moment when life emerges, but because I realized here in this place that life is not a question but an answer, that it is to answer what it means for each to live through his or her own life.

Now, I hope that my life can be a background of someone else. I hope that my life can be the foundation of another's life like the cornerstone of the pagoda.

Just like someone did to me.

Life becomes the sublime. Sarori Saroriratta.

에필로그

KTX 창원중앙역에서 택시를 타고 유명하다는 돼지국밥집으로 갔다.

원래는 코다리 냉면집을 가 볼 생각이었는데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아는 분들을 만났다. 모두 최적화의 경남도립미술관 전시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열차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일행 중에는 작가의 명성 때문인지 국내뿐 아니라 영국과 홍콩 등에서 온 해외 컬렉터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힘들어하니가 담백한 음식으로 메뉴를 정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에 밀려든 손님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왁자지껄한 손님들 목소리 사이로 “오뎅 갖고 오나라”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외침이 간간히 들렸다. 남자 하나가 깍두기 그릇과 양념 그릇을 가져와서는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세팅하고 있길래 주문 좀 받으라고 했더니 자기도 손님이라. 이 카오스에서도 피드백(feedback)과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로 인해 질서는 창발한다.

돼지국밥과 짜글이와 수육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30년 내공의 사장님이 직접 김치 단지를 들고 와서 ‘가위’로 포기김치를 잘라주는 퍼포먼스에 벽안의 외국인인 ‘눈이 번쩍’ 뜨이고 ‘입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했다. 삶은 이미 예술이다.

<끝>

Epilogue

Taking a taxi at the KTX Changwon-Jungang Station, we went to a well-known *gukbab* (rice in soup) place. I'd planned to visit a cold noodle place but changed my mind when I ran into some acquaintances on the train. We had all gotten on an morning train to see the Choi Jeonghwa's exhibition at the Gyeongnam Art Museum. Due most likely to his fame, there were some art collectors who came from the UK, Hong Kong, etc. not only from Korea. Since we thought Europeans normally avoid spicy food, we decided to eat something milder.

The restaurant was packed with people coming for lunch. From time to time, among a babble of voices, the waitresses' cries, "Get me a tray!" broke through the noise. Watching a man with two dishes arranging them on the table next to ours, I asked him to take our order, but he said he was a customer as well. Even in this chaotic situation, a new order emerged through self-organization and feedback.

Finally, many dishes were placed on our table. The restaurant's owner of thirty years' experience brought a pot of gimchi with her to our table and cut the gimchi with scissors in finger food size. Watching her 'scissors' performance, the art collectors' eyes went wide and their jaws dropped open. Life is already art.

The end.